

開運寺本 晉本 『華嚴經』卷33의 書誌的 研究

Bibliographic Study on Volume 33 of
Gaewun-sa Jin Version Avatamska Sutra

宋 日 基 (Song, Il-Gie)*

◁ 목 차 ▷

- | | |
|---------------|------------|
| 1. 緒 言 | 3.3 寫經體字 |
| 2. 板本の 特性 | 4. 經文校勘 分析 |
| 2.1 現狀 | 4.1 校勘內容 |
| 2.2 造卷 | 4.2 校勘結果 |
| 3. 題名 및 書體 分析 | 5. 結 言 |
| 3.1 卷首題 | <참고문헌> |
| 3.2 板首題 | |

< 초 록 >

이 논문은 개운사에 수장되어 있는 진본 『화엄경』 권33에 대해 서지학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힌 글이다. 개운사본 진본 권33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며 전체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卷首題와 卷尾題面을 제외하면 각 장은 26행으로 되어 있어 24행인 고려본과는 行數에서 2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개운사본의 권수제는 經題와 品題가 한 행에 기재된 형식으로 10세기 이후 간행된 고려본에는 이와 유사한 형식이 없다. 개운사본 경문의 字體는 전반적으로 寫經體字로 되어 있으며, 이 중 후대에 正字體로 변화된 9자를 선정하여 출현 횟수와 돈황 사경의 자체와 비교한 결과, 수·당대 및 신라사경자와 동일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경문의 내용을 교감한 결과 중국대장경본 계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寺刊本을 수용한 고려재조본과 이 재조본을 저본으로 편찬한 대정신수대장경과는 큰 변화가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개운사본과 동일 계통의 판본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개운사본은 대략 9-10세기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이후 고려 재조본의 저본이 된 17자본 사간본 가운데 가장 초기의 판본으로 추정하였다.

要語: 개운사, 진본 『화엄경』, 『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중화대장경』, 사간본, 권수제, 판수제, 사경체자, 돈황사경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접수일: 2012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Volume 33 of Jin version Avatamska Sutra kept in Gaewun-sa Temple from bibliographic viewpoint and found out following facts.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Gaewun-sa edition Jin version Avatamska Sutra Volume 33 are as following.

The binding is in scroll form and it consists of 19 chapters. Each chapter has 26 lines, except the book-beginning writing and the page with book-ending writing. This is different from the Goryeo editions, which have 24 lines.

The Gaewun-sa Edition book-beginning writing has the sutra titles and chapter titles in the same line. Goryeo editions published after 10th century do not have this kind of format.

The characters in Gaewun-sa Edition are in manuscript style in general. Nine characters, that had changed into square style in later age, had been chosen from the Gaewun-sa Edition and they had been compared with the characters in the Dunhuang manuscript. The result suggested that they are same with the manuscripts published in the ages of Shilla, Sui and Tang.

The content of Gaewun-sa Edition sutra had been examined. It showed substantial difference from the Zhonghua edition Tripitaka.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Goryeo Second-engraving editions, which had accommodated the temple-published editions, and the Daisho New Edition Tripitaka, which had been compiled based on the Goryeo Second-engraving edition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Gaewun-sa Edition is in the same series with Goryeo Second-engraving editions and the Daisho New Edition Tripitaka.

Based on above results, it is believed that the Gaewun-sa Edition had been published in Korea during 9th to 10th century. It is possibility to assume that Gaewun-sa Edition is the earliest edition among the 17-character temple-published editions, which became the original of Goryeo Second-engraving editions later.

Key words: Gaewun-sa Temple, Jin version Avatamska Sutra,
Avatamska Sutra, Dafang Guangfu Avatamska Sutra,
Zhonghua edition Tripitaka, temple-published edition,
book-beginning writing, writing at the beginning of engraving,
manuscript-style characters, Dunhuang manuscript

1. 緒 言

우리나라는 일찍이 8세기 전반부터 목판인쇄가 시행되었으나, 현전하는 실물 자료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는 신라의 발전된 목판인쇄술을 전승하여 수많은 목판본이 간행되었는데, 이 중에는 「화엄경」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화엄경」은 화엄사상을 중시한 신라시대 이래로 「법화경」 및 「금강경」과 더불어 교학의 중심 경전이었다.

「화엄경」의 전질을 일반적으로 ‘三本華嚴’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晉本·周本·貞元本을 총칭하여 관용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진본은 60화엄 또는 舊譯本으로 이름하며, 주본은 80화엄 또는 新譯本으로 별칭하며, 정원본은 40권으로 編卷되어 있어 「화엄경」 全卷은 모두 1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권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삼본화엄 全帙을 간행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삼본화엄 전질을 일시에 개판한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삼본 중 一本만을 간행하였으며, 심지어는 진본 60권 중 1권만을 개인이 발원하고 시제하여 판각한 경우도 간혹 보이고 있다.¹⁾ 이러한 이유로 현존하는 삼본 「화엄경」 가운데 전질을 모두 갖춘 판본은 해인사 寺刊本과 再雕本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근래 개운사 아미타불 복장에서 발견된 복장전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개운사 복장본에는 「화엄경」 寫經類 6점, 板經類 14점 등 도합 20점이 포함되어 있어 한 불상에서 이처럼 다양한 「화엄경」의 판본을 實査할 수 있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20점의 자료는 대략 9-13세기 사이에 刊寫된 불경으로 시기적으로나 판본의 다양성으로 보아 우리나라 인쇄사의 앞부분을

1) 고려 숙종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晉本「華嚴經」卷37과 卷33이 개인의 시제로 單券으로 판각된 것으로 보인다. 권37은 陝州戶長 李必先의 施財로 판각되었으며, 권33은 拯倫寺 住持 暢春의 시제로 개판되었으나, 현재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84-87). 그렇다면 개인의 시제로 단권으로 개판된 사례가 있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60권 전권을 판각하면서 각 권마다 시주한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새롭게 쓸 만큼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20점에 달하는 모든 자료가 首尾가 완전한 상태가 아닌 까닭에 간행시기를 고증하는데 난점이 없지 않다. 개운사본 『화엄경』 20점 중 목판본 14점에는 卷首에서 卷尾까지 완전한 자료는 진본 권33과 정원본 권16의 2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나머지 12점은 권수부분이 1-3장이 결락되었거나 아니면 首尾의 상당부분이 일실된 상태이다.²⁾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권수와 권미가 온전한 자료 가운데 진본 권33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자료의 現狀을 살피고, 다음으로 卷首題와 板首題의 특징을 분석하고 인쇄된 불경의 字體를 수·당대의 돈황 사경과 비교를 통해 고려본에서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는 寫經體字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문의 내용을 중화대장경에 수록된 진본 『화엄경』을 교감의 저본으로 삼아 再雕藏本 및 大正新修藏本과의 대비를 통해 판본의 계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결론적으로 연구 대상 자료인 개운사 소장본 진본 『화엄경』 권33의 대략적인 간행시기를 고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8-10세기 사이에 간행된 불교경전의 간행시기를 고증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새로 발견되는 자료의 가치를 판정하는데 하나의 전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 자료는 궁극적으로 한국서적인쇄사의 앞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2. 板本の 特性

2.1 現狀

이 불경 자료는 東晉의 佛跋陀羅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晉本 60권

2) 송일기, “開運寺 阿彌陀佛 腹藏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제47집(2010. 12), 23-56 參考.

중 권제33의 <普賢菩薩行品第31>과 <寶王如來性起品第32>를 목판에 새겨 인쇄한 목판본 불경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가 결락되어 있으며, 비록 권수의 일부에 훼손이 보이고 전체적 일정한 간격으로 누습 흔적이 보이고 있다. 권수와 권미가 온전한 상태이나, 권미에 軸棒은 없는 상태이다. 전체는 19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크기는 대략 27.5×900cm이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장은 대부분 26행으로 되어 있으나, 간혹 卷首面과 品題가 있는 장은 25행과 29행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행의 자수는 기본적으로 17자로 되어 있으나, 간혹 16-20자씩 배자되어 있는 곳도 보이고 있다. 20자로 배자된 장은 주로 계송이 들어 있는 부분인데, 재조본이나 사간본은 10자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 살펴 본 개운사본 진본 권33의 각 장의 행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開運寺本 晉本「華嚴經」卷33의 行格

張次	行數	字數	備考
제01장	25행	17자	卷首題
제02장	26행	17자	
제03장	26행	17자	
제04장	26행	17자	
제05장	26행	16-20자	偈頌
제06장	26행	20자	偈頌
제07장	26행	20자	偈頌
제08장	26행	20자	偈頌
제09장	26행	20자	偈頌
제10장	29행	17-20자	品題, 偈頌
제11장	26행	17-20자	偈頌
제12장	26행	17-20자	偈頌
제13장	26행	16-20자	偈頌
제14장	26행	17자	
제15장	26행	17자	
제16장	26행	17-18자	
제17장	26행	16-18자	
제18장	26행	17-18자	
제19장	9행	17자	卷尾題

그리고 紙質은 다펜으로 만든 저지로 충해 방지를 위한 黃染 처리가 잘되어 있으며, 종이의 표면은 도침이 되어 있다. 인경지에 나타난 발문은 가로로 굵게 보이고 있다. 字體는 전체적으로 마치 붓으로 쓴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돈황사경본과 흡사하다. 따라서 개운사본은 전문 사경승이 쓴 정서본을 바탕으로 판각하여 인출한 초기 고판본으로 보인다.³⁾

2.2 造卷

『화엄경』의 漢譯本은 三本이 있다. 이를 번역한 시대의 朝號와 年號에 따라 晉本・周本・貞元本으로 부르며, 또한 번역의 권수에 따라 60권본・80권본・40권본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진본 60권본을 舊譯本이라하며, 주본 80권본을 新譯本으로 구분하여 이름하기도 한다. 그런데 삼본 중 진본은 동진시대 삼장사문인 佛跋陀羅에 의해 한역되었는데, 번역 이후 초기에 쓰여진 사본에는 50권본이 보이고 있어 동일한 진본의 경우에도 조권에 있어서 10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래 진본 중 50권본의 존재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근래 이에 대한 자료의 발굴을 통해 관심이 되고 있다.⁴⁾ 50권본은 우리의 초조본을 비롯하여 돈황사경과 趙城金藏에서 보이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寺刊本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 자료의 傳存 사실에 대해서는 필자에 의해 개운사 아미타불 복장본 전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사실이 있다(송일기, “開運寺 阿彌陀佛 腹藏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제47집(2010. 12), 36-37).

4) 진본 『화엄경』의 造卷에 대해서 해설서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중국의 불경목록에는 일찍부터 그 상이함을 ‘或本’으로 기재하여 50권본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근래 유부현에 의해 각종 불경목록에서 관련 기록을 찾아 50권본의 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柳富鉉, “晉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제28집(2004. 9)). 그는 불타발타라에 의해 진본이 한역된 이래 僧祐가 생존했던 시기까지 유포되었고, 수나라 開皇14(564)년 무렵에 60권본이 출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이승재에 의해 50권본 전반에 걸친 조사와 분석이 진행되었는데, 그는 현존하는 50권본을 初雕本과 敦煌寫本에서 찾아내어 그 결과를 단행본으로 발표하였다(李丞宰, 『50卷本 華嚴經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비록 10권의 편권 차이가 있으나 모두 34품으로 경문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운사본 진본 권33의 편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화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50권본과의 대조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고려재조대장경」과 「중화대장경」에 수록된 진본 「화엄경」을 대상으로 편권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晉本「華嚴經」의 造卷 比較(50卷本の *표시는 明永樂北藏임)

品題	60卷本		50卷本	
	品次	卷次	品次	卷次
世間淨眼品	第1-1	卷1	第1	卷1
世間淨眼品	第1-2	卷2	第1-2	卷2
盧舍那佛品	第2-1		第2-1	
盧舍那佛品	第2-2	卷3	第2-2	卷3
盧舍那佛品	第2-3	卷4	第2-3	×
如來名號品	第3		第3	卷4
四諦品	第4-1		第4	
四諦品	第4-2			
如來光明覺品	第5	卷5	第5	
菩薩明難品	第6		第6	
淨行品	第7	卷6	第7	
賢首菩薩品	第8-1		第8-1	
賢首菩薩品	第8-2	卷7	第8-2	卷6
佛昇須彌頂品	第9		第9	
菩薩雲集妙勝殿上說偈品	第10-1		第10	
菩薩雲集妙勝殿上說偈品	第10-2			
菩薩十住品	第11	卷8	第11	卷7
梵行品	第12		第12	
初發心菩薩功德品	第13	卷9	第13	卷8*
明法品第十四	第14	卷10	第14	
佛昇夜天宮自在品	第15		第15	卷9*
夜摩天宮菩薩說偈品	第16		第16	
功德華聚菩薩十行品	第17-1	卷11	第17-1	卷10
(功德華聚菩薩)十行品	第17-2	卷12	之2	
菩薩十無盡藏品	第18		第18	

如來昇兜率天宮一切寶殿品	第19	卷13	第19	卷11
兜率天宮菩薩雲集讚佛品	第20	卷14	第20	
金剛幢菩薩十迴向品	第21-1		第21-1	卷12
金剛幢菩薩十迴向品	第21-2	卷15	第21-2	卷13*
金剛幢菩薩十迴向品	第21-3	卷16	第21-3	卷14*
(金剛幢菩薩十)迴向品	第21-4	卷17	之4	卷15
(金剛幢菩薩十)迴向品	第21-5	卷18	之5	卷16
(金剛幢菩薩十)迴向品	第21-6	卷19	之6	卷17
(金剛幢菩薩十)迴向品	第21-7	卷20	之7	卷18
金剛幢菩薩十迴向品	第21-8	卷21	第21-8	×
金剛幢菩薩十迴向品	第21-9	卷22	第21-9	×
十地品	第22-1	卷23	第22-1	卷19
十地品	第22-2	卷24	之2	
十地品	第22-3	卷25	第22-3	卷20*
十地品	第22-4	卷26	第22-4	卷21
十地品	第22-5	卷27	第22-5	卷22*
十明品	第23	卷28	第23	卷23
十忍品	第24		第24	
心王菩薩問阿僧祇品	第25	卷29	第25	卷24
壽命品	第26		第26	
菩薩住處品	第27		第27	
佛不思議法品	第28-1	卷30	第28-1	卷25*
佛不思議法品	第28-2	卷31	之2	卷26
如來相海品	第29	卷32	第29	卷27*
佛小相光明功德品	第30		第30	
善賢菩薩行品	第31	卷33	第31	卷28*
寶王如來性起品	第32-1		第32-1	
寶王如來性起品	第32-2	卷34	之2	卷29
寶王如來性起品	第32-3	卷35	第32-3	卷30*
寶王如來性起品	第32-4	卷36	第32-4	
離世間品	第33-1		第33-1	卷31
離世間品	第33-2	卷37	之2	卷32
離世間品	第33-3	卷38	第33-3	卷33
離世間品	第33-4	卷39	第33-4	卷34*
離世間品	第33-5	卷40	第33-5	

離世間品	第33-6	卷41	第33-6	卷35*
離世間品	第33-7	卷42	第33-7	卷36*
離世間品	第33-8	卷43	第33-8	
入法界品	第34-1	卷44	第34-1	卷37*
入法界品	第34-2	卷45	第34-2	卷38
入法界品	第34-3	卷46	第34-3	卷39*
入法界品	第34-4	卷47	之4	卷40
入法界品	第34-5	卷48	第34-5	卷41*
入法界品	第34-6	卷49	之6	卷42
入法界品	第34-7	卷50	之7	卷43
入法界品	第34-8	卷51	第34-8	卷44*
入法界品	第34-9	卷52	第34-9	卷45*
入法界品	第34-10	卷53	第34-10	卷46*
入法界品	第34-11	卷54	第34-11	卷47*
入法界品	第34-12	卷55	第34-12	卷48*
入法界品	第34-13	卷56	之13	卷49
入法界品	第34-14	卷57	第34-14	卷50*
入法界品	第34-15	卷58	第34-15	×
入法界品	第34-16	卷59	第34-16	×
入法界品	第34-17	卷60	第34-17	×

참고로 재조장에 수록된 삼본 『화엄경』은 初雕本과는 판본의 계통이 전혀 다르다. 대체로 삼본 『화엄경』의 경우 초조본은 대부분 開寶藏을 그대로 복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조본은 당시 고려에서 유통되고 있던 17자본 寺刊本을 수용하였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중화대장경은 기본적으로 趙城金藏을 저본으로 삼고 일실된 부분은 재조본과 永樂北藏으로 보완하여 영인한 것이다. 따라서 비교 대상 자료가 대장경본과 사간본이 상호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장경본은 수차의 교정으로 사간본 계통과는 경문의 내용에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개운사본 진본 『화엄경』 권33은 60권본에 해당하며, 이에 대응하는 50권본은 권28에 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題名 및 書體 分析

3.1 卷首題

개운사 불복에서 『화엄경』 20점이 수습된 바 있는데, 다행히 이 자료는 권수로부터 권미까지 온전하여 卷首題와 卷尾題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불경이다. 권수제는 ‘大方廣佛華嚴經普賢菩薩行品第卅一’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권차 ‘卅三’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 행에 역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역자표시는 없으나, 권수제 아래로 ‘新譯’이나 ‘函次’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진본 권33에 해당되는 사간본 板經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권수에 보이는 권수제가 한행에 ‘經題+品題+品次/卷次’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개보장이 완성된 1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고려시대 『화엄경』 사경 또는 판경의 권수제 형식과는 전혀 다르다. 이는 오히려 중국의 수·당대 및 신라시대 고사경의 권수제 형식과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권미제는 ‘大方廣佛華嚴經第卅三’으로 되어 있어 권수제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卷次와 品次의 숫자 ‘三十’이 ‘卅’으로 약기되어 있는데, 이 또한 고려본에서는 볼 수 없는 기재방식으로 중요한 식별 요소가 된다.

이처럼 고려본에서는 볼 수 없는 권수제 특징이 신라 사경에서는 볼 수 있어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에 쓰여 진 사경이 극히 드문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고려 이전의 사경은 호암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新羅白紙墨書華嚴寫經>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 경주 기림사와 성암문고 등에 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사경이 수장되어 있다. 이 사경은 제작한 연대가 755년으로 밝혀져 있으며, 각권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조성기에는 사경 제작에 참여한 인물의 이름·직위·출신지·역할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본래 이 사경은 당나라 측천무후 재위시기인 699년에 實叉難陀가 새로 번역한 周本 『華嚴經』 80권 전권을 사성하여 8축으로 제작했을 것으로 보이나, 현존하는 부분은 권1-10의 1축과

권44-50의 잔권(殘卷) 1축 등 모두 2축에 해당된다.

이처럼 사성연대가 분명한 호암본 <백지묵서화엄사경>의 권수제는 개운사본과 동일하게 ‘經名+品名+品次/卷次’의 형식으로 한 행에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행에 ‘實叉難陀’란 譯者名도 보이지 않고 있다. 비록 비교대상 자료가 진본과 주본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권수제 형식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권수제 형식은 돈황에서 발견된 수·당대 사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호암본 사경의 제작시기와 가까운 8세기 전반에 목판에 새겨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현존하고 있으나, 권수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발견 당시 보이지 않았던 권수제 가운데 끝 부분인 ‘尼經’ 2자가 1988년 수리하여 보완된 상태인데, 경제의 다음 행에 ‘譯者名’이 기재되었을 것인가가 의문이다. 상술한 2점의 자료로 보아 아마 재조본에 보이는 ‘弥陀山’이란 역자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비록 다른 불경의 경우이긴 하나, 근래 영광 불갑사 명부전 존상에서 발굴된 <묘법연화경권3> 또한 권수제 형식이 개운사본과 동일하며, 또한 역자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⁵⁾

이러한 사실로 보아 개운사본 진본 『화엄경』은 우리나라 서적의 발전 과정에서 사본으로부터 판본 단계로 넘어 온 초기 목판본으로 보이는데, 卷首題는 經題와 品題가 한 행에 기재되었고, 한역자인 불타발타라는 기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卷次나 品次의 기재방식에 있어서 권20에서 권40은 ‘卅’·‘卅’·‘卅’같이 약칭으로 기재하여 후대에 간행된 고려본과 구분이 된다.

3.2 板首題

개운사본에는 판수제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처음부터 목판에 새기지 않았을 경우이다. 또 하나는 본래 목판에 판각하였을 때는 판수제를 새겼을 것이나, 인출 후 점련과정에서 판수제 부분을

5) 宋日基, “靈光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卷3의 刊年問題,” 『書誌學研究』 제48집(2011. 6).

잘라내고 연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전하는 진본 『화엄경』을 조사하여 개운사본의 판수제 방식에 대해 추론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국내에 현존하는 사간본 진본 『화엄경』의 板首題를 조사한 것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⁶⁾

<표 3> 晉本 『華嚴經』의 ‘板首題’ 記入 方式

卷次	卷首題	行字數	板首題	裝幀	特徵	指定番號	所藏處
卷2	[3행]	26행17자	晉本經 第二卷 第□張	권자	花	보물1650호	개운사
卷3	3행	24행17자	[晉三 二 刻手]	접장	音義	충북278호	광제사
卷4	3행	24행17자	晉四 二 刻手	권자	音義	보물685호	성암문고
卷10	3행	24행17자	晉十 二	접장	卷末逸	보물959호	기림사
卷13	3행	24행17자	미상	미상			미상
卷15	3행	24행17자	晉十五 二	접장	卷末逸	보물1017호	관문사
卷20	1행	26행17자	미상	권자	寸 寫經字		성암문고
卷28	[3행]	24행17자	晉二十八 二	권자	卷末逸	보물686호	성암문고
卷28	3행	24행17자	晉二十八 二	접장	卷末逸	보물793호	월정사
卷29	3행	26행17자	晉本經 第二十九卷 第□張	권자	花 寫經字		한상봉?
卷33	1행	26행17자	미상	권자	寫經字	보물1650호	개운사
卷33	[3행]	24행17자	미상	권자	音義		미상
卷35	3행	24행17자	晉三十五 二 刻手	접장	音義		기림사
卷36	3행	24행17자	晉經 第三十六 二幅	접장	元板本	보물1580호	수국사
卷37	3행	24행17자	미상	권자	黃/音義	국보202호	아단문고
卷38	3행	24행17자	晉三十八 二	접장	音義	보물1192호	한솔제지
卷43	[1행]	26행17자	없음	권자	寫經字		관문사
卷44	[1행]	26행17자	미상	권자	寫經字	보물1650호	개운사
卷48	[3행]	24행17자	미상	권자	音義	보물1650호	개운사
卷53	3행	24행17자	晉五十三 二	접장	音義	보물959호	기림사
卷53	3행	24행17자	晉五十三 二 刻手	접장	宙/音義	보물1736호	불교박물관

그런데 위의 진본 『화엄경』에 보이는 판수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6) 남권희 교수가 고려 구결 자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三本 『華嚴經』의 서지적 특징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진본은 권4 등 10종을 소개하였다(南權熙, “高麗 口訣資料 『大方廣佛華嚴經』, 卷14의 書誌의 分析,” 『口訣研究』 제1집(1996), 386-389).

24행으로 된 고려본은 진본의 약칭인 ‘晉’과 권·장차를 숫자로만 기입하고 있어 다른 26행본과는 일정하게 유의할 부분이 없지 않다. 먼저 관수제 특징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장정이 권자본으로 경문에 寫經字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한 장이 26행으로 구성된 판본이 주목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卷次는 개운사본 권33을 제외한 권2, 권20, 권29, 권43, 권44의 5점이 대상이 된다. 이 중 권2와 권29만이 관수제 방식을 알 수 있다. 권2의 관수제는 ‘晉本經 第二卷 第□張’과 같고, 권29의 관수제는 ‘晉本經 第二十九卷 第□張’으로 동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의 ‘晉本經’은 진본 『화엄경』을 약칭한 것이며, 다른 판본은 모두 권차에서 ‘卷’자를 생략하여 기입하고 있으나 상기 2종은 권차와 장차의 말미에 ‘卷’·‘張’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진본 권2와 29는 동일한 판본으로 판단되며, 간행시기도 대략 개보장 이전에 판각된 사간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운사본 권33은 粘連 과정에서 관수제 부분을 절단하고 연결한 것으로 추정되나, 판각 시기는 그 보다 앞선 것으로 보이며 동일계통의 판본은 아니다.

3.3 寫經體字

개운사본 진본 『화엄경』 권33의 주목되는 점은 관수제 형식과 더불어 경문을 쓴 字體의 특징에 있다. 그것은 초조본 완성 이후에 간행된 고려본에는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隋·唐대 및 신라 사경에서 흔히 보이는 서체이다. 개운사본(진본 권33)에 보이는 자체의 특징은 수당대 및 신라 사경의 서체와 매우 흡사한데, 그 중에서 주목되는 글자는 ‘能·無·亦·寂·正·定·足·止·土’자 등의 사경체자이다. 이들 글자는 하나의 예외 없이 사경체자로 되어 있다. 다음에서는 개운사본에 보이는 사경체자의 출현 횟수와 돈황 사본의 서체와 비교를 시도한다. 돈황 사본의 서체 조사는 黃征에 의해 사본에 보이는 속자를 集子하는 방식으로 채록하여 『敦煌俗字典』으로 출판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였다.⁷⁾

7) 黃征, 『敦煌俗字典』(상해: 상해출판사, 2005).

3.3.1 能字

개운사본 진본 『화엄경』 권33에 보이는 ‘能’자의 자체는 <표 4>의 이미지 모습과 같다. 이 글자의 돈황사본에 보이는 자형의 모습은 『敦煌俗字典』에 보이고 있는바 아래와 같다. 그리고 能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모두 61회 출현하고 있는데, 예외 없이 모두 사경체자로 되어 있다. 이 사경체자는 行書에 가까운데, 고려본에는 모두 楷書體 정자로 변화되어 있다.

<표 4> 能자의 이미지와 출현 위치

	위치(張次-行數-字數)	횟수
	2-12-2, 2-13-8, 4-3-14, 5-9-17, 6-25-18, 6-26-17, 7-3-19, 7-5-18, 7-8-19, 7-16-14, 7-17-18, 7-22-19, 8-6-11, 9-16-18, 9-18-11, 9-19-19, 9-21-16, 9-24-16, 10-10-7, 11-12-7, 14-4-15, 14-6-7, 14-14-7, 14-16-5, 14-17-7, 14-24-16, 15-1-7, 15-9-10, 15-13-15, 15-18-10, 15-18-14, 15-21-14, 15-21-16, 15-22-13, 15-22-15, 15-23-14, 16-19-5, 16-20-4, 16-21-3, 16-22-4, 16-26-3, 16-26-15, 17-1-17, 17-2-17, 17-3-16, 17-11-15, 17-13-2, 17-14-8, 17-15-12, 17-16-15, 17-18-6, 17-20-1, 17-21-15, 17-23-5, 17-25-4, 17-12-4, 18-10-17, 18-12-4, 18-12-10, 18-14-13, 18-16-14	61

3.3.2 無字

개운사본 진본 『화엄경』 권33에 보이는 ‘無’자의 자체는 <표 5>의 이미지 모습과 같다. 이 글자의 돈황 사본에 보이는 자형의 모습은 『敦煌俗字典』에 보이고 있는바 아래와 같다. 그리고 無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모두 187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예외 없이 모두 사경체자인 古字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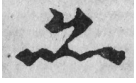
<표 5> 無자의 이미지와 출현 위치

	위치(張次·行數-字數)	획수
无 无 无 无 无 无 无 无 无 无 无 敦煌 185《佛說辯意長者子經》：“无沙迦舍婆，阿三之太子，无如無然，稱善无。”敦煌 134《金光明經》：“无諸沙提賢聖之辭。” 敦煌 018《佛說阿耨律經》：“无天無神，帝土人民无斷（无）續。” 清華 396《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无入一无國无國。” 敦煌 170-1-13《小品般若波羅蜜經》：“无國是可得。”按，敦煌北朝經本“无”字多皆作簡體“无”。 敦煌 020《大方等如来藏經》：“无國是故。” S.0911V《十慧經》：“无能盡盡力全國。”起經《坐忘（待）人民》。 敦煌 032《41》《妙法蓮華經》：“无國无國教，在彼其國。” S.4642《發願文龍王經》：“无能如以諸覺門門，而（无）得身之（无）口（无）聲（无）真（无）無（无）色（无）國无。”	2-12-5, 2-12-10, 2-13-3, 2-14-17, 3-1-2, 3-3-15, 3-21-3, 4-6-11, 4-6-13, 4-10-4, 4-18-11, 5-13-9, 5-19-7, 5-25-13, 6-1-8, 6-1-12, 6-4-16, 6-5-18, 6-6-13, 6-8-6, 6-9-6, 6-11-8, 6-15-3, 6-15-14, 6-17-18, 6-19-3, 6-20-18, 6-21-13, 6-24-7, 6-24-14, 6-24-16, 7-2-13, 7-2-18, 7-3-6, 7-3-13, 7-4-6, 7-6-6, 7-8-1, 7-8-3, 7-11-6, 7-12-17, 7-14-13, 7-17-11, 7-19-3, 7-20-6, 7-26-6, 8-1-8, 8-1-11, 8-2-12, 8-5-3, 8-5-6, 8-5-13, 8-8-7, 8-8-18, 8-12-1, 8-12-3, 8-12-18, 8-13-11, 8-13-13, 8-16-18, 8-17-8, 8-17-18, 8-18-1, 8-18-17, 8-21-2, 8-22-3, 8-23-7, 8-24-18, 8-25-18, 8-26-8, 9-1-18, 9-2-3, 9-2-14, 9-4-12, 9-4-18, 9-5-9, 9-5-19, 9-6-19, 9-7-4, 9-7-19, 9-8-13, 9-9-9, 9-9-18, 9-10-2, 9-10-18, 9-11-8, 9-11-18, 9-13-2, 9-17-1, 9-19-16, 9-21-6, 9-22-1, 9-23-17, 9-24-1, 9-24-3, 9-25-8, 9-25-18, 10-7-8, 10-7-16, 10-7-18, 10-9-18, 10-7-8, 10-7-16, 10-7-18, 10-13-3, 10-16-3, 10-19-4, 10-20-17, 10-21-6, 11-4-3, 11-7-1, 11-7-12, 11-8-3, 11-10-13, 11-10-18, 11-11-4, 11-13-15, 11-13-17, 11-14-2, 11-15-15, 11-16-4, 12-5-9, 12-8-6, 12-13-8, 12-14-7, 12-15-10, 12-22-3, 12-22-18, 12-24-17, 13-1-19, 13-3-14, 13-5-1, 13-6-16, 13-9-11, 13-11-8, 13-10-8, 13-12-6, 13-13-11, 13-14-14, 13-14-17, 13-19-13, 13-21-3, 13-22-2, 13-22-15, 13-24-2, 13-24-7, 13-24-16, 13-25-11, 13-26-13, 14-1-9, 14-2-6, 14-2-8, 14-4-9, 14-9-14, 14-10-13, 14-11-1, 14-12-4, 14-13-10, 15-4-8, 15-4-13, 15-6-9, 15-6-14, 15-9-9, 15-11-3, 17-1-14, 17-8-2, 17-12-2, 17-12-4, 17-15-4, 17-15-16, 17-20-5, 17-25-14, 18-4-6, 18-4-10, 18-6-15, 18-8-4, 18-8-9, 18-14-4, 18-14-10, 18-16-8, 18-20-2, 18-23-6, 18-23-9, 18-26-10, 19-5-10, 19-5-15, 19-7-7	187

3.3.3 亦字

개운사본 진본 『화엄경』 권33에 보이는 ‘亦’자의 자체는 <표 6>의 이미지 모습과 같다. 이 글자의 돈황 사본에 보이는 자형의 모습은 『敦煌俗字典』에 보이고 있는바 아래와 같다. 그리고 亦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모두 32회 출현하고 있는데, 예외 없이 모두 사경체자로 되어 있다. 이 사경체자는 자형 상 無자의 초서체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려본 불경에는 모두 정자체로 변화되어 있다.

<표 6> 亦자의 이미지와 출현 위치

	위치(張次-行數-字數)	횟수
	5-6-13, 5-12-12, 5-14-13, 6-8-9, 6-9-9, 6-15-13, 6-22-9, 7-9-16, 7-24-1, 8-14-11, 8-15-13, 8-19-13, 8-26-17, 9-2-8, 9-4-17, 9-5-2, 9-5-6, 9-26-8, 9-26-11, 13-13-18, 14-10-17, 14-11-11, 14-21-9, 14-26-1, 15-5-6, 15-12-5, 16-2-5, 16-7-16, 17-7-3, 18-8-8, 18-15-15, 19-3-4	32

3.3.4 正字

개운사본 진본 『화엄경』 권33에 보이는 ‘正’자의 자체는 <표 7>의 이미지 모습과 같다. 이 글자의 돈황 사본에 보이는 자형의 모습은 『敦煌俗字典』에 보이고 있는바 아래와 같다. 그리고 正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모두 72회 출현하고 있는데, 예외 없이 모두 사경체자로 되어 있다. 이 글자는 간혹 心자로 오독하는 경우가 있다.

<표 7> 正자의 이미지와 출현 위치

	위치(張次-行數-字數)	횟수
	1-3-1, 1-6-12, 1-10-9, 1-12-7, 1-14-16, 1-15-9, 1-23-7, 2-18-10, 2-25-1, 3-5-10, 3-7-13, 3-11-16, 3-12-7, 3-18-9, 4-5-9, 4-7-6, 4-8-1, 4-16-12, 6-7-14, 6-11-4, 6-11-16, 7-16-19, 7-21-14, 7-23-14, 8-22-14, 9-3-9, 9-14-4, 10-28-15, 11-1-14, 11-3-1, 11-12-1, 12-1-15, 12-2-10, 12-3-13, 12-4-12, 12-7-15, 12-8-2, 12-10-15, 12-20-8, 12-26-9, 13-17-14, 13-18-1, 13-18-17, 13-20-7, 13-22-9, 14-3-3, 14-11-9, 14-12-10, 14-13-16, 14-15-6, 14-22-8, 14-25-16, 15-2-13, 15-5-4, 15-7-10, 15-12-3, 15-16-13, 15-19-16, 15-20-10, 15-25-14, 16-2-3, 16-4-1, 16-7-14, 16-12-14, 17-7-1, 17-9-16, 18-2-16, 18-9-5, 18-15-13, 18-24-13, 19-3-2, 19-8-12	72

3.3.5 定字

개운사본 진본 『화엄경』 권33에 보이는 ‘定’자의 자체는 <표 8>의 이미지 모습과 같다. 이 글자의 돈황 사본에 보이는 자형의 모습은 『敦煌俗字典』에 보이고 있는바 아래와 같다. 그리고 定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5회 출현하고 있는데, 예외 없이 모두 사경체자로 되어 있다. 고려본 불경에서는 모두 정자체로 변화되어 있다.

<표 8> 定자의 이미지와 출현 위치

 S. 512(歸三十字母例): “定, 李堂田附.” S. 388(正名要錄): “從正.” “右各依脚注.” [正字]	위치(張次-行數-字數)	횟수
	2-17-14, 9-19-17, 12-11-15, 16-17-18, 18-19-16	5

3.3.6 寂字

개운사본 진본 『화엄경』 권33에 보이는 ‘寂’자의 자체는 <표 9>의 이미지 모습과 같다. 이 글자의 돈황 사본에 보이는 자형의 모습은 『敦煌俗字典』에 보이고 있는바 아래와 같다. 그리고 寂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2회 출현하고 있는데, 예외 없이 모두 사경체자로 되어 있다. 寂자의 사경체자는 家자와 자형이 흡사하여 간혹 家자로 오독하는 경우가 보인다.

<표 9> 寂자의 이미지와 출현 위치

 日博 001《法句經》: “覺無正路得寂” [寂] [同] 寂來集.” S. 445《金光明經集傳》: “蓋於街州得寂” [同] 寂得抄寂, 隨身供養.” 敦煌 024(S-3)《大力等大集經》: “從無寂靜, 名不共法, 何以故? 隨寂靜故.” S. 388《正名要錄》: “右字形類別, 音義是同。古四角者同上, 今用要者同下.” 按: “寂”字俗作“𡇗”, 與“家”字最近類。	위치(張次-行數-字數)	횟수
	9-6-3, 9-8-6	2

3.3.7 足字

개운사본 진본 『화엄경』 권33에 보이는 ‘足’자의 자체는 <표 10>의 이미지 모습과 같다. 이 글자의 돈황 사본에 보이는 자형의 모습은 『敦煌俗字典』에 보이고 있는바 아래와 같다. 그리고 足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15회 출현하고 있는데, 예외 없이 모두 사경체자로 되어 있다. 이 글자는 사경에 행서체로 쓰여 있으나, 고려본 불경에는 대부분 정자체로 변화되어 있다.

<표 10> 足자의 이미지와 출현 위치

	足 唐敏 027《大智度論》：“二者[]下千幅輪，輪相具[]。” 敦煌 004(2-2)《優婆塞戒經》：“以難得故，要須具[]。” 敦煌 277《妙法蓮華經》卷第一：“如來方便知見波羅蜜，皆已具[]。” 敦煌 072《妙法蓮華經》卷第四：“雖說此等，未[]為難。” S. 610《楞嚴錄》：“[]伎倆，有節腳。” S. 388《正名要錄》：“(上正)，(下)相承用。”“右依龍藏《字樣》甄錄要用者，考定折衷，刊削能燬。”	위치(張次-行數-字數)	횟수
		2-24-8, 3-12-4, 3-16-14, 6-3-17, 6-14-17, 6-20-7, 7-4-12, 7-19-7, 9-9-17, 10-7-8, 10-13-17, 10-16-17, 12-22-12, 13-24-9, 13-26-12	15

3.3.8 止字

개운사본 진본 『화엄경』 권33에 보이는 ‘止’자의 자체는 <표 11>의 이미지 모습과 같다. 이 글자의 돈황 사본에 보이는 자형의 모습은 『敦煌俗字典』에 보이고 있는바 아래와 같다. 그리고 止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3회 출현하고 있는데, 예외 없이 모두 사경체자로 되어 있다. 止자의 사경체자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으나, 正자와는 상부 한 획의 차이로 흡사하여 간혹 正자 또는 心자로 판독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본경에 해당하는 영락북장(晉本 권28)에는 이를 正자로 誤讀한 사례가 있으니 독자의 주의를 요한다.

<표 11> 止자의 이미지와 출현 위치

	山 止 山 甘博 136《道行般若經》卷第九,“師名爲誰,在何方[止]?” 教研 257《賢愚經》卷第四,“於自所頭起房安[止].” S. 6659《太上洞玄靈寶妙經》序章,“世負重爲貴,[止]一身爲流.” S. 799《錄古定尚書》,“乃[止]齊焉.”校:顏元孫《干祿字書》;	위치(張次-行數-字數)	횟수
		1-14-6, 2-16-5, 14-16-15	3

3.3.9 土字

개운사본 진본 「화엄경」 권33에 보이는 ‘土’자의 자체는 <표 12>의 이미지 모습과 같다. 이 글자의 돈황 사본에 보이는 자형의 모습은 「敦煌俗字典」에 보이고 있는바 아래와 같다. 그리고 土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10회 출현하고 있는데, 예외 없이 모두 사경체자로 되어 있다. 土자의 사경체자는 정자체의 중앙부에 점하나가 첨가된 상태인데, 고려본 불경에는 대부분 점이 탈락된 정자체로 변화되었다.

<표 12> 土자의 이미지와 출현 위치

	土 S. 799《錄古定尚書》,“光於四方,繼於西[土].”“慶曰,“通矣,西[土]之人!”校:顏元孫《干祿字書》,“土:土,土,平止.” 甘博 904-1《賢愚經》,“合[土]人民,皆感德奉.” 教研 019(5-5)《大般涅槃經》,“於中勸告,爲是勸導? 是樂[土]耶?” Φ096《雙悉記》,“瓶(瓶)天摩[土]紅瓶.”教研 189《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若三千大千國[土]滿中歸[土].” S. 6981《傳燈文》,“敬禮常住三寶,爲[土]安寧,法體吉祥.” S. 6575《南誦和尚問答錄後集》,“全百餘百籍,雖若[土]錄,變成[土].”	위치(張次-行數-字數)	횟수
		5-9-2, 5-12-7, 6-25-10, 7-4-10, 7-6-10, 7-7-20, 7-11-10, 7-26-10, 8-2-3, 16-17-2	10

이상 전체 19장에 걸쳐 가장 특이한 사경체자 9자를 선정하여 각 글자의 전체 출현 횟수와 그에 대응하는 돈황 사본에 나타난 자체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자체의 특징을 보이는 대체로 수·당대 및 신라 사경에 주로 보이고 있는데, 목판본의 경우는 사본에서 판본으로 넘어가는 초기 판본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권자본 형태의 판본 중 이러한 사경체자의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 자료는 대체로 늦어도 11세기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經文校勘 分析

4.1 校勘內容

이 불경의 경문 내용을 검토하여 그 계통을 살피기 위해 다른 판본들과 교감을 실시하였다. 교감의 저본을 선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였으나, 대장경본을 제외한 사간본 진본『화엄경』권33은 그다지 전본이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고본으로 고려 숙종연간에 지리산 拯倫寺 주지 暢春의 시재로 진본 권33 한권만을 개판한 판본이 전래되고 있으나, 현재 그 전본의 소재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밖에 고본으로는 方山石經本과 해인사 寺刊本이 현전하고 있을 뿐이다.

흔히 교감의 저본으로 교감기가 부록되어 있는『中華大藏經』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대장경은 중국에서 趙城金藏을 기본 저본으로 삼고, 금장의 누락분은 고려 장과 永樂北藏으로 보완하여 영인하여 널리 보급되어 있다. 그런데『중화대장경』의 주요 저본인 금장은 개보장을 저본으로 삼아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진본 50권본이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60권본 권33에 대응하는 50권본 권28의 말미에 대장경본과 상호 교감한 교감기가 부록되어 있어 일차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재 텍스트본으로 널리 활용하는 CBETA에 수록된 진본 권33과 대비하여 추가하고, 또한 고려재조본과 교감한 결과, <표 13>과 같이 54곳에서 문자이동이 보이고 있다.

開運寺本 晉本「華嚴經」卷33의 書誌的 研究

<표 13> 개운사본 晉本「華嚴經」권33 교감내용

開運寺本			再雕本	大正藏	永樂北藏 (中華大藏經)	備考 (CBETA 校勘)
순위	위치 (張-行-字)	校勘字				
01	01-03-06	卷33	卷33	卷33	卷28 (*50권본)	宮-31, 宋元明-34, 聖-35
02	01-03-06	[少]	少	少	妙	
03	01-05-17	或	惑	惑	惑	
04	01-10-13	○	○	○	爲	
05	01-12-10	疾	疾	疾	疫	
06	01-17-06	○	○	○	不生	
07	01-23-02	○	○	○	離	
08	02-15-03	入	入	人	入	人
09	02-15-08	○	○	○	障	
10	02-18-11	念	念	念	命	
11	03-10-17	姓	姓	姓	性	CT
12	03-20-04	可	可	可	可	
13	03-25-17	根	根	根	相	
14	03-26-12	於	於	於	○	
15	04-14-17	入	入	入	人	
16	04-23-08	○	○	○	諸	
17	04-26-17	伎	妓	妓	妓	CT
18	05-15-02	此	此	此	爲	
19	06-01-18	智	智	諸	智	
20	06-04-10	燃	然	然	盛	
21	06-05-15	行	行	衆	行	CT
22	06-06-19	王法	王法	王法	法王	CT
23	06-09-05	性	性	性	中	
24	06-23-07	見	現	現	見	
25	07-09-15	聚	聚	聚	聚	集
26	07-09-15	復不	復不	復不	復不	明-不復
27	07-11-03	幡	飜	翻	翻	聖-幢, CT
28	07-13-04	界	界	界	間	
29	08-04-10	身	身	身	鼻	
30	08-04-12	閔	礙	礙	礙	量
31	08-24-10	與	與	與	興	

32	10-03-16	或	或	或	有	
33	10-15-18	悉	悉	悉	曉	
34	10-17-18	○	之一	之一	之一	經題省略
35	11-01-02	以	以	以	○	
36	12-12-08	通	通	通	道	
37	12-20-03	○	○	○	爲	
38	12-25	何-提	何-提	何-提	순서바뀜	
39	13-21-07	之	之	之	○	
40	14-03-06	興	興	興	現	
41	14-16-15	止	止	止	正	寫經字 錯誤
42	16-15-13	○	○	○	性	
43	16-18-05	數	數	數	數	
44	16-18-08	○	○	○	出	
45	16-23-11	○	所	所	所	CT
46	16-24-03	伏大	大伏	大伏	大伏	聖-伏大, CT
47	17-06-03	品	別	別	別	聖-品, CT
48	17-15-17	所	所	所	然	
49	17-24-10	有	有	爲	有	
50	18-06-06	○	○	○	不於-智慧	新譯本(卷51) 첨가 不於佛所曾種善根能得 如來少分智慧
51	18-07-02	○	○	○	但以	
52	18-11-16	散	散	散	敗	
53	19-02-10	虛	虛	虛	○	
54	19-09-09	○	○	○	佛子-生故	해당내용 없음

4.2 校勘結果

진본 권33의 내용 교감을 실시한 결과 54곳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감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운사본과 재조본, 그리고 대정신수대장경과는 그다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영락북장과는 44곳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개운사본을 중심으로 재조본과 대정장에서 차이를 보이는 10곳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14> 개운사본과 재조본의 교감내용

開運寺本			再雕本	大正藏	永樂北藏	備考
순위	위치 (張-行-字)	校勘字				
03	01-05-17	或	惑	惑	惑	재조본에서 수정
08	02-15-03	入	入	人	入	대정장에서 수정
17	04-26-17	伎	妓	妓	妓	재조본에서 수정
19	06-01-18	智	智	諸	智	대정장에서 수정
20	06-04-10	燃	然	然	盛	재조본에서 수정
21	06-05-15	行	行	衆	行	대정장에서 수정
34	10-17-18	○	之一	之一	之一	재조본에서 수정
45	16-23-11	○	所	所	所	재조본에서 수정
47	17-06-03	品	別	別	別	재조본에서 수정
49	17-24-10	有	有	爲	有	대정장에서 수정

위의 표를 보면 개운사본을 대상으로 재조본에서 수정된 곳이 6곳이며, 대정장에서 수정된 곳이 4곳이다. 일반적으로 대정장은 고려 재조본을 저본으로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4곳을 제외하면 실제 전체적으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락북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주목할 점은 80권 신역본에서 보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마지막 “佛子-生故”는 대략 6장 분량에 이르는 내용으로 60권본에는 전혀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개운사본은 사간본과 재조본과는 동일한 계통을 형성하고 있으나, 영락북장 등 중국대장경본과는 전혀 상이한 계통으로 파악된다.⁸⁾

8) 유부현은 사간본 진본 「화엄경」 권29를 대상으로 교감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柳富鉉, “寺刊板 50卷本 「華嚴經」 卷第29 研究,” 『書誌學研究』 제29집(2004. 12), 119-120).

5. 結 言

이상 개운사에 수장되어 있는 진본 『화엄경』 권33에 대해 서지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개운사본 진본 권33은 권자본 형태이며 전체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수제와 권미제면을 제외하면 각 장은 26행으로 되어 있어 24행인 고려본과는 행수에서 2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개운사본은 동진의 불타발타라가 한역한 진본 『화엄경』 가운데 60권으로 구성된 것 중 권33에 해당하며, 이는 50권본의 권28에 대응한다.

셋째, 개운사본의 권수제는 경제와 품제가 한행에 기재된 형식으로 10세기 이후 간행된 고려본에는 유사한 형식이 없다.

넷째, 개운사본 경문의 字體는 전반적으로 사경체자로 되어 있으며, 이 중 후대에 정자체로 변화된 9자를 선정하여 출현 횟수와 돈황 사경의 자체와 비교한 결과, 수·당대 및 신라사경자와 동일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경문의 내용을 교감한 결과 중국대장경본 계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사간본을 수용한 고려제조본과 재조본을 저본으로 편찬한 대정신수대장경과는 큰 변화가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개운사본은 대략 9-10세기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이후 고려 제조본의 저본이 된 17자본 사간본 계통 가운데 가장 초기의 판본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資料集

『(影印)中華大藏經』. 臺北: 中華書局, 1984.

『(影印)高麗大藏經』. 서울: 동국대학교, 1957-1976.

「(影印)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대전: 문화재청, 2000.

「(影印)無垢淨光大陀羅尼經」, 대전: 문화재청, 1999.

俄羅斯科學院 東方研究所 聖彼得堡分所. 「俄藏黑水城文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英藏敦煌文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書道全集」, 東京: 平凡社, 1965.

「敦煌寶藏」, 臺北: 商務印書館, 1981-?.

「西域美術」(3冊), 東京: 講談社, 1982.

山西文物局, 中國歷史博物館. 「應縣木塔遼代秘藏」, 北京: 文物出版社, 1991.

「한국서예사특별전논문집」, 서울: 예술의 전당, 1998.

敦煌研究院. 「敦煌:紀念敦煌藏經洞發現一百周年」, 北京: 朝華出版社, 2000.

磯部彰 編. 「台東區立書道博物館 所藏 中村不折舊藏禹域墨書集成」: 文部科學省科學研究費特定領域研究<東アジア出版文化研究>總括班, 東京: 二玄社, 2005.

2. 單行本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清州: 清州古印刷博物館, 2002.

藤枝晃. 「高昌殘影」, 京都: 法藏館, 1978.

藤枝晃. 「文字の文化史」, 東京: 岩波書店, 1971.

宋日基. 「靈光 佛甲寺의 佛教文獻」, 서울: 태학사, 2005.

宿白. 「唐宋時期的雕板印刷」, 北京: 文物出版社, 1999.

이승재. 「50卷本 華嚴經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長澤規矩也. 「和漢書の印刷とその歴史」, 東京: 吉川弘文館, 1952.

田中塊堂. 「日本古寫經現存目錄」, 京都: 思文閣, 1973.

中村不折. 「新疆と甘肅の探險」, 東京: 雄山閣, 1934.

千惠鳳.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調查研究」, 서울: 成保文化財團, 1988.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坪井俊映, 『佛教書誌學』, 京都: 佛教大學, 1967.

3. 論文

강순애, “大方廣佛華嚴經의 流通本에 대한 고찰.” 『창립20주년기념논문집』(한성대학교문헌정보학과) 2000.

南權熙, “高麗 口訣資料 大方廣佛華嚴經 卷14의 書誌的 分析.” 『口訣研究』 제1집(1996).

文明大, “新羅華嚴經寫經과 그 變相圖의 研究.” 『韓國學報』 제14집(1979).

宋日基, “益山 王宮塔 出土 『百濟金紙角筆 金剛寫經』의 研究.” 『馬韓·百濟文化』 제16집(2004).

宋日基, “釋迦塔本 『無垢淨光經』 經板의 復原 檢討.” 『書誌學研究』 제42집(2009. 6).

宋日基, “古代 동아시아 佛經의 ‘卷首題形式’ 考察.” 『東アジア出版文化研究』, 仙台: 東北大學 東アジア出版文化研究センター, 2010.

宋日基, “靈光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卷3의 刊年問題.” 『書誌學研究』 제48집(2011. 6).

柳富鉉, “晉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제28집(2004. 9).

柳富鉉, “寺刊板 50卷本 華嚴經卷第29 研究.” 『書誌學研究』 제29집(2004. 12).

李丞宰, “湖巖本과 石山寺本 『華嚴經』의 비교 연구.” 『書誌學報』 제28집(200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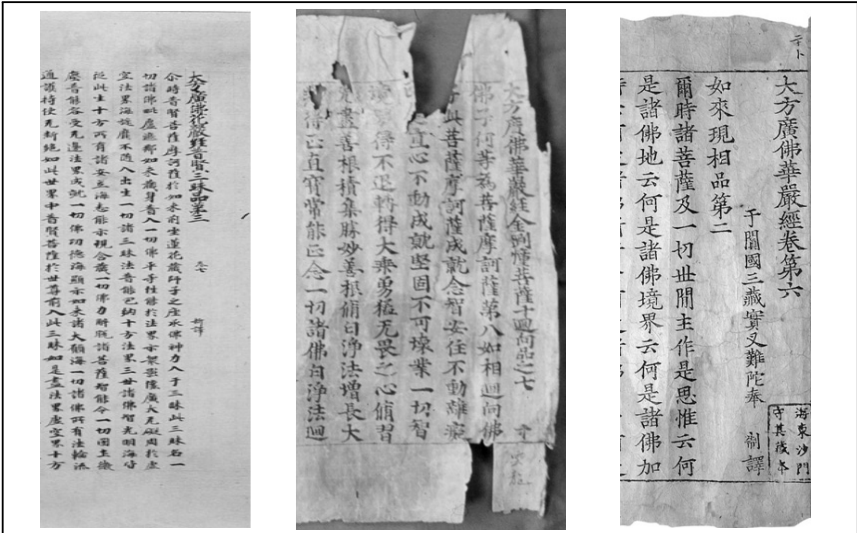
鄭在永,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研究』 제7집(2001).

千惠鳳, “고려초기 간행의 寶篋印陀羅尼經.” 『圖書館學報』(중앙대 도서관학과) 第2輯(1973).

<부록> 사진자료



<사진 1> 개운사본 진본 「화엄경」 권33 : 권수제면



<사진 2> 「화엄경」의 권수제 : 주본 권7(8세기) - 진본 권20(9세기) - 주본 권6(11세기)

